

##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성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지상업 · 김태수<sup>†</sup> · 이 호<sup>\*</sup>  
(\*부경대학교 · \*해군사관학교)

###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Stability and Organization Culture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Sam-Up Ji · Tae-Soo KIM<sup>†</sup> · Ho LEE<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R.O.K Naval Academy)

#### Abstract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238 marine sports participants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sociality, and organization culture, to eliminate the organizational(home, school, club, workplace, etc.) culture maladjustment phenomenon which is caused by personal stress, the lack of physical activity, and the lack of sociality due to the rapid change of modern society and enhance sociality, adjustment to society and the lack of creativity due to the rigid hierarchy and contribute to organization culture through marine sports among sports which we enjoy with nature.

Firstly, according to general self-efficacy,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gender differences in higher than women in all sub-variables of the sub-factors of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sociability, organizational culture, sub-culture and develop cultural factors agreed man showed that in the sub-factors of organization culture showed that the development of high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in the age of 20s.

Secondly, in terms of the effect of self-efficacy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on sociality, it is found that self-regulation and level of difficulty positively influence on the culture of agreement, the culture of development and the culture of hierarchy.

Lastly, in terms of the effect of self-efficacy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on organizational culture, it is shown that self-regulat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culture of agreement, the culture of development and the culture of hierarchy.

**Key words : Marine sports, Self-efficacy, Sociality, Organization culture**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산업혁명 이후 토지·노동·자본 중심이던 사회는 오늘날 지식이나 정보가 사회의 지배적인 특

징으로 변화하였고, 인간관계 또한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변화로 야기되는 개인의 스트레스 증가와 신체활동의 부족, 그리고 사회성 결여 등으로 인한 사회 또는 조직(가정, 학교, 동호회, 회사 등)문화에 대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7814, ts00100@hanmail.net

한 부적응현상 또한 증가하고 있다(Ji, Sam-Up, Kim, Tae-Soo, 2014).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수행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 또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학습이론에 따르면 환경과 인간의 인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위가 습득되는 과정으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대리학습,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통제, 과정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자기효능감에 따라 개인이 정보의 인지적 처리과정을 거쳐 새로 학습된 행위를 나타내게 되며(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더 큰 사회적 학습효과를 보이게 된다(Baik, Ki-Bok, 2004).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세계에 속하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며, 심지어 죽을 때에도 장례식이라는 사회적인 문화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성은 인간발달의 요체라 할 수 있으며(Odom, McConnell, McEvoy, 1992),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은 상호작용이 결과적으로 이끄는 대인관계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구분되며, 긍정적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협동하기, 도와주기 등의 친(親)사회적 행동으로 구성되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하기, 무시하기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Choi, Hye-Sun, 1994). 또한 사회성 발달과정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배우는 과정, 각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서 기대되어지는 사회적 역할을 행하는 과정,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람과 사회적 행동을 좋아하는 사회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과정 등을 포함한다(Hurlock, 1978).

조직체의 전통과 분위기이며(Ouchi, 1981), 작업집단의 규범, 관계 및 의식에 의해 명시되는 조직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사인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을 결속시켜주는 공유가치 및 의미체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행동

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거나 행위를 유발시켜주는 사회적인 힘을 부여하고(Kilmann, 1982),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며, 현상이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개념화하며, 적기에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무형의 인지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는 사회화의 차원에서 특정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규범 등을 소속사회 성원에게 학습하도록 하여 내면화시킴으로써 사회체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체제유지기능이 있으며, 개인의 인성과 태도 및 가치관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Lim, Beon-Jang, 2010).

더욱이 해양스포츠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육체적·정서적 효과를 비롯하여 자아실현, 환경과 생태, 삶의 질, 심미적 가치 등의 항목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 확립효과 등 여러 가지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는 완전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Ji, Sam-up, 2003), 개인의 자유로운 흥미의 추구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함께 자주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육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널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Ji, Sam-Up, Kim Tae-Soo, 2014).

해양스포츠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양스포츠 제도(Ji Sam-Up, 2000), 해양스포츠 산업(Kim Tae-Soo, 2013), 해양스포츠 활동(Ji, Sam-Up, Kim Tae-Soo, 2014), 해양스포츠 참여(Ji, Sam-Up, Lee, Ho, 2013; Sung, Ki-Hwan, 2012), 라이프스타일(Lim Jae-Hyun, 2011; Ji, Sam-Up, Lee, Jae-Bin, 2009), 지역 활성화(Jin Hyun-Min, 2011; Kim Min-Chol, 2008; Kim Ok-Ju, 2008), 해양관광(Kim Sung-Jin, 2010; Lee Jin-Mo, 2009) 등의 연구는 있지만, 해양스포츠 참여자와 관련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및 조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포츠 가운데 적절한 신체활동으로 자연과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해양스포츠를 통하여 활동성과 사교성을

고양시키고, 사회적응과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의 향상과 창의성 및 자율성 등을 증대시켜 조직문화에 기여할 수 있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 2. 연구목적 및 가설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성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향후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 향상과 조직문화 기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성, 조직문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 3)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대상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성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부산과 경남지역의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일반인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총 응답자 255명 중 불성실 응답자 17명을 제외한 238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설문지이다. 문항들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에 사용된 설문지는 Kang, Jae-Yeon(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자기조절 4문항, 자신감 4문항, 난이도 3문항의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성에 사용된 설문지는 Lee, Seung-Hee(2010), Hwang, Sung-Ha(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활동성 5문항, 안정성 5문항, 사교성 4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직문화에 사용된 설문지는 Koo, Yeon-Won(2005), Kim, Sang-Yong(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합의문화 4문항, 발전문화 3문항, 위계문화 4문항의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Table 4>).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The frequency	%
Sex	Male	165	69.3
	Female	73	30.7
Age	Under the Twenties	17	7.1
	The Twenties	133	55.9
	The Thirties	51	21.4
	More Then Forties	37	15.6
	Total	238	100

<Table 2> Reliability of Questionnaires for Organization Culture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Culture of Agreement	1~4	.821
Culture of Development	5~7	.792
Culture of Hierarchy	8~11	.705

<Table 3> Reliability of Questionnaires for Self-efficacy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Self-regulation	1~4	.844
Confidence	5~8	.805
Level of difficulty	9~11	.665

<Table 4> Reliability of Questionnaires for Sociality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Activity	1~5	.904
Stability	6~10	.819
Sociability	11~14	.820

###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성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를 통해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킨 다음, 분석가능하고 유용한 자료를 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검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조직문화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넷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성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성, 조직문화

의 차이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하위변인 자기조절은 유의수준( $p < .001$ )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과 난이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Difference of Self-efficacy by Sex (Mean±S.D.)

Division	Male (n=165)	Female (n=73)	t-value	p
Self regulation	3.750±.602	3.428±.561	3.881	.000***
Confidence	3.656±.832	3.578±.869	.652	.515
Level of difficulty	3.529±.744	3.374±.658	.944	.346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하위변인 사교성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활동성과 안정성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Difference of Sociality by Sex (Mean±S.D.)

Division	Male (n=165)	Female (n=73)	t-value	p
Activity	3.507±.857	3.684±.727	-1.536	.126
Stability	2.716±.855	2.909±.845	-1.613	.108
Sociability	3.563±.764	3.352±.732	1.988	.048*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하위변인 합의문화( $p < .05$ )와 발전문화( $p < .01$ )는 각 유의수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계문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Difference of Organization Culture by Sex (Mean±S.D.)

Division	Male (n=165)	Female (n=73)	t-value	p
Culture of Agreement	3.700±.763	3.520±.544	2.060	.041*
Culture of Development	3.630±.780	3.315±.635	3.035	.001**
Culture of Hierarchy	3.704±.656	3.657±.685	.503	.616

\*p<.05, \*\*p<.01, \*\*\*p<.001

나.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성, 조직문화의 차이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성의 차이는 하위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하위변인 발전문화(p<.05)와 위계문화(p<.01)에서 각 유의수준에서 2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문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가.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9>와 같다. F는 2.276로 유의수준(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8%의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변인 자기조절(t=1.986, p<.05)과 난이도(t=2.097, p<.01)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이도가 자기조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감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0>과 같이, F는 18.132로

유의수준(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Table 8> Difference of Organization Culture by Age (Mean±S.D.)

Division	Age	Mean ±S.D.	F-value /p
Culture of Agreement	below twenties	3.397 ±.573	2.180 /.091
	the thirties	3.742 ±.643	
	the thirties	3.563 ±.749	
	more then forties	3.520 ±.870	
Culture of Development	below twenties	3.039 ±.422	3.222 /.023*
	the twenties	3.621 ±.749	
	the thirties	3.490 ±.809	
	more then forties	3.504 ±.722	
Culture of Hierarchy	below twenties	3.220 ±.422	4.210 /.006**
	the twenties	3.763 ±.693	
	the thirties	3.754 ±.662	
	more then forties	3.554 ±.550	

\*p<.05, \*\*p<.01, \*\*\*p<.001

<Table 9> Effect of Self-efficacy on Activity of Marin Sports Participants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constant)	3.668	.396		9.260
Self regulation	.184	.092	.136	1.986*
Confidence	.001	.065	.001	.015
Level of difficulty	.160	.076	.140	2.097*
R <sup>2</sup> =.168 F=2.276 p=.000				

\*p<.05, \*\*p<.01, \*\*\*p<.001

나타났고, 18.9%의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변인 자기조절(t=-2.462, p<.05), 자신감(t=-6.218, p<.001)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이 자기조절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난이도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0> Effect of Self-efficacy on Stability of Marin Sports Participants

Independence variable	B	S.E	$\beta$	t
(constant)	4714	.376		12.523
Self regulation	-.216	.088	-.154	-2.462*
Confidence	-.385	.062	-.379	-6.218***
Level of difficulty	.071	.073	.060	.980
R <sup>2</sup> =.189 F=18.132 p=.000				

\*p<.05, \*\*p<.01, \*\*\*p<.001

다.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1>과 같다. F는 8.596로 유의수준(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9.9%의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변인 자기조절(t=2.501, p<.05)과 자신감(t=2.506, p<.01), 난이도(1.990, p<.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자기조절, 난이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1> Effect of Self-efficacy on Sociability of Marin Sports Participants

Independence variable	B	S.E	$\beta$	t
(constant)	1.747	.352		4.959
Self regulation	.206	.082	.165	2.501*
Confidence	.145	.058	.161	2.506*
Level of difficulty	.135	.068	.128	1.990*
R <sup>2</sup> =.099 F=8.596 p=.000				

\*p<.05, \*\*p<.01, \*\*\*p<.001

### 3.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

가. 자기효능감이 발전문화에 미치는 영향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발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2>와 같다. F는 8.575로 유의수준(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9.9%의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변인 자기조절(t=3.978, p<.001)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감과 난이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2> Effect of self-efficacy on Culture of Development of Marin Sports Participants

Independence variable	B	S.E	$\beta$	t
(constant)	1.856	.349		5.323
Self regulation	.324	.081	.262	3.978***
Confidence	.061	.057	.068	1.065
Level of difficulty	.078	.067	.075	1.159
R <sup>2</sup> =.099 F=8.575 p=.000				

\*p<.05, \*\*p<.01, \*\*\*p<.001

나. 자기효능감이 합의문화에 미치는 영향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합의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3>과 같이, F는 8.242로 유의수준(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9.6%의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3> Effect of self-efficacy on Culture of Agreement of Marin Sports Participants

Independence variable	B	S.E	$\beta$	t
(constant)	2.336	.329		7.107
Self regulation	.356	.077	.306	4.646***
Confidence	.024	.054	.028	.435
Level of difficulty	-.022	.063	-.023	-.352
R <sup>2</sup> =.096 F=8.242 p=.000				

\*p<.05, \*\*p<.01, \*\*\*p<.001

또한 하위변인 자기조절(t=4.646, p<.001)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감과 난이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자기효능감이 위계문화에 미치는 영향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합의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4>와 같다. F는 7.344로 유의수준(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6%의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t=4.646, p<.001)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감과 난이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4> Effect of self-efficacy on Culture of Hierarchy of Marin Sports Participants

Independence variable	B	S.E	$\beta$	t
(constant)	2.520	.310		8.119
Self regulation	.284	.072	.259	3.916***
Confidence	.083	.051	.105	.1621
Level of difficulty	-.048	.060	-.052	-.795
R <sup>2</sup> =.086 F=7.344 p=.000				

\*p<.05, \*\*p<.01, \*\*\*p<.001

#### IV. 논 의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성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향후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사회성 및 조직문화기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 조직문화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자기조절(p<.001)과 사회성의 하위변인 사교성(p<.05), 조직문화의 하위변인 합의문화(p<.05)와 발전문화(p<.01)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조직문화의 하위변인 발전문화(p<.05)와 위계문화(p<.01)에서 2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능력이란 몸을 움직이고, 신체운동을 조정하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기본

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운동능력요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또한 해양스포츠 활동의 특성이 바다라는 살아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연령이 높은 사람보다는 연령이 낮은 20대에게 더욱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요소로(Ji, Sam-up, Kim, Tae-Soo, 2014), 개인의 성(性)과 같은 일반적 특성이 스포츠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Riddick, 1985)와도 일치하고 있다.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활동성은 자기조절(t=1.986, p<.05)과 난이도(t=2.097, p<.01)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정성은 자기조절(t=-2.462, p<.05)과 자신감(t=-6.218, p<.001)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성은 자기조절(t=2.501, p<.05), 자신감(t=2.506, p<.01), 난이도(1.990, p<.05)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스포츠 조직구성원은 타구성원에 비해 개인적인 성향이 다분하고, 조직태도가 극히 개인적인 행태를 보이는 특성으로(Kim, Tae-Soo, Ji, Sam-up, 2014),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변화를 싫어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모든 하위요인 합의문화(t=4.646, p<.001), 발전문화(t=3.978, p<.001), 위계문화(t=4.646, p<.001)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학교나 사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조직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또는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과 지속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고, 적응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높고, 자신의 행동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가 긍정적이면 자신의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조절하고(Ji, Sam-up, Kim, Tae-Soo, 2014), 자기효능감이 과거의 행동보다 미래의 성과에 보다 좋은 예측도구로서 과거의 성과가 통제된다면 자기효능감이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자기효능감과 개인적 목표가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Bandura, 1977), 해양스포츠의 정기적인 활동은 체력강화와 정서순화, 자긍심, 그리고 생활에서의 활력감이 증진됨으로 인해 자기효능감 및 사교성의 고양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야기되는 개인의 스트레스 증가, 신체활동 부족, 사회성 결여 등으로 인한 조직문화의 부적응현상 및 경직된 위계질서로 인하여 부족한 창의성 및 자율성 등을 높인다고 하였다(Ji, Sam-up, Kim, Tae-Soo, 2014).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및 조직문화의 관계를 구명하여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야기되는 개인의 스트레스, 신체활동부족, 사회성결여 등으로 인한 조직(가정, 학교, 동호회, 회사 등)문화 부적응현상을 적절한 신체활동으로 자연과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해양스포츠를 통하여 사회성을 고양시키고 사회적응, 경직된 위계질서로 인한 창의성부족 등을 증대시켜 조직문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스포츠 참여자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을 통해 연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그리고 조직문화의 차이에서 성별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자기조절과 사회성의 하위변인 사교성, 조직문화의 하위변인 합의문화와 발

전문화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조직문화의 하위변인 발전문화와 위계문화에서 2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조절과 난이도가 활동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교성은 자기조절, 자신감, 난이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조절과 자신감은 안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이 합의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ferences

- Baik, Ki-Bok(2004).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Seoul: Changminsa.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Choi, Hye-Sun(1994). The Theory and Pract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ommunity, Seoul: Hakmunsa.
- Hong, Kye-Ok · Kang, Hye-Won(2010).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Attachment to Parents, their Self-efficacy for Academic Attainment to College Life Adaptation,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3, 133~144.
- Hurlock, E. B.(1978). Child Development. NY: Mc Graw-Hill.
- Hwang, Sung-Ha(2012).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eam Building Program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for Improvement of Soci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Ji, Sam-Up(2000).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Sport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Ji, Sam-Up(2003). The Analysis of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for Marine-sports Popularization, The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42(6),



- 241~257.
- Ji, Sam-Up · Kim, Tae-Soo(201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Organization Culture through Marine Sports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4), 2131~2141.
- Ji, Sam-Up · Lee, Ho(2013). Research on Constraints, Motivation, Perceived Value and Post-behavior of Marine Spor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641~652.
- Ji, Sam-Up · Lee, Jae-Bin(2009).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Satisfaction and User's Lifestyles on Base of Marine Spor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6), 3391~3403.
- Jin, Hyun-Min(2011). A Case study of Infra-structure based Activating Plans of The Marine Sports on West Coas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 Kwang University.
- Kang, Jae-Yeon(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mpromise and Career-related Psychological Variabl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Kilmann, R. H.(1982). *Gaining Control of the Corporate Culture*, San-Francisco, Jossey-Bass.
- Kim, Min-Cheol(2008). Cluster Construction Plan for Revitalization of South Coast Sports Indust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shin University.
- Kim, Ok-Ju(2008). The Study on Characterization of Marine Sports in the Southwestern A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 Kim, Sang-Yong(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gin University.
- Kim, Sung-Jin(2010). Analysis of The Coastal Area's Characteristics and an Important Degree by Sightseeing Factor for Revitalization of The Ocean Tour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Eui University.
- Kim, Tae-Soo(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Job Insecurity and Turnover of Marine Sports Industry Employ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Kim, Tae-Soo · Ji, Sam-Up(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Job Insecurity and Turnover of Marine Sports Industry Employe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899~912.
- Koo, Yeon-Won(2005). A Study 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gin University.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Coping and Disease : A Cognitive Behavioral Perspective*, In W.J. Neufeld(Ed.), *Psychological Stress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 Lee, Ho(2011). Research on Constraints, Motivation, Perceived value, and Post-behavior of Maritime Spo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Lee, Jin-Mo(2009). A Study on Developmental Strategies for Marine Leisure Sports Indust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Maritime University.
- Lee, Seung-Hee(2010).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Attitudes Toward Sports on Development of Sociability Among Middle Schoolers Participating in After-school Sports Activities.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49(6), 103~113.
- Lee, Sook-Jeong · Yu, Ji-Hyun(2008).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3), 589~607.
- Lim, Beon-Jang(2010). *Sports Sociology*, Seoul: Rainbowbooks.
- Lim, Jae-Hyn(2011). Research on Constraints, Motivation, Perceived value, and Post-behavior of Maritime Spo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Odom, S. L. · McConnell, S. R. · McEvoy, M. A.(1992).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and its significance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S. Odom, S. McConnell, & M. McEvoy(Eds.), *social competence and its significance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sues and strategies for intervention*(pp. 3~35), Baltimore: Paul H. Brookes.

Ouchi, W. G.(1981). Theory Z: How American Business can Meet the Japanese Challenge,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blishing.

Riddick, C. C.(1985).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s and female, Leisure Science 7, 47, 63.

Sung, Ki-Hwan(2012).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in Participation Typ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archeski, A. · Mahon, N. E. · Yarcheski, T. J. ·

Cannella, B. L.(2004). A Meta-analysis of Predictors Positive Health Practic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6(2), 102~108.

- 
- 논문접수일 : 2014년 09월 26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10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3일